

가나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가나

I. 일반개황

면적	240천 km ²	G D P	134억 달러(2007년)
인구	23.5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570 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Cedi (C)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환율(달러당)	.94(2007년)

-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 해안에 자리 잡은 가나는 한반도의 약 1.1배의 국토면적과 23.5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코트디부아르(서), 부르키나파소(북), 토고(동)와 접경하고 있음.
-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Gold Coast'라고 불리었으나, 1957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독립을 이루어낸 가나는 9~10세기 경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융성하였던 고대 가나제국의 이름을 따 국호로 정함.
- 2000년,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가나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국가이며 이러한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개혁 모범국가로 지목받아 동국을 아프리카 경제개혁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서방국가로부터 다양한 원조자금을 공여받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F
경제성장률	5.8	5.8	6.0	5.5	6.3
재정수지 / GDP	-3.6	-2.1	-7.8	-9.1	-8.7
소비자물가상승률	12.6	15.1	10.9	12.7	13.0

자료 : IFS, EIU

□ 2004년 이후 평균 6%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 지속

-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광업부문 성장, 코코아 수출호조,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 발전, 항만 등 경제인프라 건설, 교통, 호텔 등 관광인프라 개선에 따른 관광산업 신장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8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의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나, 건설 및 광업부문의 견조한 성장 및 2008년 아프리카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 호조에 힘입어 6%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 물가상승 압력 가중

- 고유가 및 2007년 가뭄 및 홍수에 따른 식량작물 작황악화로 인해 2007년 가나의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8.8%를 훨씬 상회하는 12.7%를 기록함. 향후에도 지속되는 고유가 기조 속에 수도세와 전기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또한 인상을 앞두고 있어 2008년 물가

상승률은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상반기, 쿠파어 대통령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고 해결을 위해 곡물과 식료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및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물가상승 억제 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적자 폭 확대 추세

- 정부 보조금 지급, 비효율적 조세 운영, 외채 부담 등으로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음. 단, 2001년 이후 IMF 개혁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재정개혁으로 긴축기조를 유지, 적자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세수기반확충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외채유입을 통한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지난 1월 개최된 아프리카컵 및 12월에 예정된 대선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대, 목표치인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4%를 훨씬 상회하는 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 2006년 기준 농업부문이 GDP의 37.3%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제조업 비중은 25.3%에 불과 하는 등 낙후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광물수출이 전체 수출의 50%가량을 차지하고 그 중 금 수출이 90%를 차지하는 등 코코아, 금, 목재 등 1차 산업 생산품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주요 수출품목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조건과 국제 시세에 따라 한 해의 수출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낙후된 경제인프라

- 가나는 1957년 독립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 도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였으나 1970년대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 도로·철도 및 통신시스템을 비롯한 경제 인프라가 낙후돼 전체 가나 육상 물동량의 98%가 이용하는 도로교통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경제활동에 비효율을 야기함.
- 가나는 총 전력 생산의 70%를 수력발전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강수량을 비롯한 외부충격에 전력공급이 크게 좌우됨. 2006년 당시 가뭄의 영향으로 평균 발전량의 30% 수준의 전력만이 공급돼 전력소비가 많은 채굴 및 금속제련 등 광업부문의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 지하광물자원 부국

- 가나는 금(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2위 생산국),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망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동국의 경제개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07년 유전발견

- 2007년 6월 영국석유회사인 Tullow사가 가나 해역에서 해상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함. 가나국영석유회사(GNPC : Ghana 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추정매장량은 3억에서 7억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현 시추 장소는 코트디부아르와 연결된 해저분지로 추가 매장이 확실히 되고 있으며 2007년 8월 10억에서 15억 배럴 가량의 매장량이 추가로 확인됨. 유전개발로 인해 수출 및 재정수입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지만 본격적인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빨라도 2011년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성장가능성

- 가나는 독립 후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알루미늄 제련, 목재 및 농산물 가공, 시멘트 등을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말미암아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설비가 노후화 되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 2002년, 쿠푸어 정부는 Presidential Special Initiatives 하에 의류제작, 카사바 및 팜 오일 가공 분야 등의 경공업부흥전략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완화를 통해 해당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씀. 또한 시골 지자체 단위의 농업기업 설립을 도모, 지역개발에 힘쓰는 등의 노력의 경주하고 있음.

□ Business 환경분석 지수, 꾸준한 상승세 기록

- 가나는 매년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Business 환경 분석 지수인 'Doing Business 2007'에서 세계 175개국 중 2005년, 2006년 기간 동안 가장 경제개혁을 잘 한 10개국 (Top 10 Best Reformer)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음.
- 2008년 Doing Business 지표에서도 총 10개 분야 중 창업용이성, 소유권 등기 용이성 및 교역 용이성 등 5개 분야에서 개혁 성과를 인정받으며 2년 연속 Top 10 Best Reformer 중 하나로 선정됨.

□ IMF 및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착실한 구조조정 시행

- 동국을 아프리카 경제개혁의 모델로 만들려는 세계은행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가나는 1983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경제자유화 시장중심 경제정책,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을 목표로한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음.

- 특히 2003년 5월 IMF는 가나정부의 3년간의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및 은행 등 공공분야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동 프로그램 중간 점검보고서를 통해 IMF는 본 PRGF 이행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현 쿠푸어 정부는 2001년 출범 초기부터 과도한 외채 경감을 통한 빈곤 타파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HIPC Initiative 참여를 선언, 동 프로그램에 따라 유류 및 기타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함.
- 집권 2기에서는 고인플레이, 고환율 등 과거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켰던 주요인들을 계속해서 억제시키며 대외원조와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겠다는 이른바 Golden Age of Business 계획을 발표, 201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의 중소득 국가 진입 목표를 천명한 바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상 수 지	-567	-1,105	-1,040	-1,555	-1,615
경 상 수 지 / GDP	-6.4	-10.4	-8.8	-11.6	-11.9
상 품 수 지	-1,593	-2,545	-3,027	-3,627	-3,723
수 출	2,704	2,802	3,727	4,105	5,063
수 입	4,297	5,347	6,754	7,732	8,786
외 환 보 유 액	1,606	1,752	2,089	2,204	2,292
총 외 채 잔 액	7,067	6,743	3,192	4,836	5,236
총 외 채 잔액 / GDP	79.6	63.7	26.8	36.1	38.5
D . S . R .	7.0	7.2	5.0	4.0	3.7

자료 : IFS, EIU

□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기록

- 코코아의 생산량 증대 및 국제 거래가 상승과 더불어 Ahafo 및 Akyem 광산 개발을 통한 금 생산 증대 및 금 거래가 상승에 따라 가나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고유가 및 2007년의 가뭄과 홍수에 따른 작황악화로 말미암은 식량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상승, 상품수지 적자폭은 확대됨.
- 2009년에는 금 및 코코아의 거래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수입증가세는 유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 상황 양호

- HIPC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2006년 총외채규모가 반감한 이래 D.S.R.이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총수출 및 총외채/GDP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외환보유고 또한 2007년 기준 20억불 규모로 안정된 증가 추세를 기록 중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사회적 안정 지속

- 가나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81년 로링스 정권 출범까지 군부와 민간의 대립으로 다섯 번의 쿠데타와 아홉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여왔음.

- 2000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민주회의 (National Democratic Congress : NDC)의 후보인 존 아타 밀스(John Atta Mills, 62)를 누르고 신애국당 (NPP : New Patriotic Party)의 쿠푸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냄.
- 2004년 12월 대선에서 쿠푸어 대통령이 52%의 지지를 얻어 44%의 지지를 얻은 국민민주회의(NDC)의 존 아타 밀스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전체 230석 중 과반수인 129석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정책운영 기반 유지에 성공하였음.

□ 200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나

- 2000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온 존 쿠푸어의 퇴임이 확실시 되며 2008년 12월로 예정된 대선에 대비해 가나의 여당인 신애국당 (NPP)은 2007년 12월 22일에 열린 경선을 통해 나나 아쿠포 아도 (Nana Akufo-Addo, 64)를 대선주자로 선출함. 나나 아쿠포 아도는 명망 있는 정치인 가문 출신으로서 2001년부터 쿠푸어 내각에서 법무장관 및 외무장관을 두루 역임하며 핵심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쿠푸어 대통령은 나나 아쿠포 아도의 대선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를 약속함.
- 야당인 국가민주회의(NDC)는 존 아타 밀스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 8년만의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쿠푸어에게 패했다는 점, 이전에 국가민주회의 내각 당시 부통령으로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전력의 그의 대선 승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그 동안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한 저소득층의 표심이 향후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가나의 대선이 소득계층 간, 종족 및 종교 간 분열양상으로 전개될 시에 케냐와 마찬가지로 대선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사회 불안 요인 낮음

- 종족간의 마찰 등 다소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심각한 사회 불안가능성은 미미한 편임.

□ 가나 군부 탈 정치화 진행 중

-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2000년 이래 가나 군부는 탈정치 세력화하여 현재는 코트디부아르 및 라이베리아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는 등 역내 평화유지에 힘쓰고 있음.

2. 국제관계

□ 서방세계와 관계유지 속 중국과의 관계 강화

- 전 로링스 대통령은 정권초기 사회주의 정책으로 반미, 친리비아 및 친쿠바 외교를 펼쳐 한 때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소원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전환,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전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을 포함하여 주요교역대상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현 쿠푸어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서방 원조국과의 협력관계 심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미국의 새천년과제 계정으로부터 5억불 규모의 원조자금을 공여받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최근 가나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무상차관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서방위주의 외교관계에서 중국으로 그 무게가 옮겨지고 있음.

□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 유지

- 쿠푸어 대통령이 2003년 2004년간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ECOWAS)의 의장을 역임하고 가나 전 장관인 Mohamed Ibn Chambas가 현 의장을 수행하는 등 가나는 나이지리아와 함께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동국은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등 인접국가와의 정치·경제교류 강화 및 지역 정세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가나 독립을 이끌었던 은쿠마 초대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 (AU) 창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래, 쿠푸어 대통령이 2007년 아프리카연합(AU ; African Union) 의장에 선출되는 등 AU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외채과다최빈국 (HIPC) Initiative, 파리클럽 대규모 채무탕감 실시

- 2001년 1월 신정부 출범이후 과도한 외채경감을 통한 빈곤타파 및 복지 증진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2001년 3월 HIPC Initiative 에 참여하였음.

- 이후 2004년 7월 Completion Point에 도달함에 따라 총 외채 70억 달러 중 약 35억 달러를 탕감 받게 되었으며 파리클럽 또한 8.2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탕감을 결정하였음.
- 또한, 가나정부는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원조 공여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의 구조조정 프로그램보다 높은 수준의 가나빈곤감소전략(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 GPRS)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작된 GPRS I을 2005년에 종결하고 현재는 GPRS II (2006-2009)를 추진 중으로 추가적인 원조 유입이 기대됨.

□ 채무 상환 부담 경감 기대

- 이러한 대규모 채무 탕감과 대외 원조의 지속적인 유입이 견조한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가나의 대외채무 상환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03년 이후 D.S.R.이 7%대까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2. 국제시장 평가

□ 빈곤국들의 채권시장 접근을 돕기 위해 UNDP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첫 적용사례로 가나는 S&P 등급을 획득하였음.

- S&P : B+(2003.9)
- Fitch : B+ (2007.9)
- Moody's : 없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 6등급('04.10) → 6등급('06.10)
- ICRG : 88/140('08.5) → 86/140('08.6)
- Euromoney : 90/185('07.9) → 89/185('08.3)
- I.I : 90/174('07.9) → 93/174('08.3)

□ 주요 ECA 지원태도

- US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ECGD : 중단기 인수 가능
-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해외직접투자(2007년 12월 말 현재, 총 투자기준): 97건 217백만 불

□ 국교수립 : 1977. 11. 14 (북한과는 1964. 12. 28 수교)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 협정('87), 문화협정('90)

□ 2007년 우리나라의 가나 대상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46백만 불, 18백만 불 수준임.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자동차, 섬유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코코아, 금을 비롯한 광물자원임.

□ 해외직접투자(2007년 12월 말 현재, 총 투자기준): 신규법인 수 19건, 7.4백만 불

V. 종합 의견

- 세계 최대의 코코아 생산국이며 세계 제 2위의 금 생산국인 가나는 풍부한 광물, 삼림,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며 농업, 광물 등 1차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570달러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임.
-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달성한 가나는 2000년 민주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는 등 아프리카에서 매우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 쿠파어 정권은 모범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World Bank와 여타 국제사회로부터 아프리카 경제개혁 모델 국가로 지목받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코코아와 금 가격 상승과 꾸준한 경제개혁, 대외 원조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 3년간 평균 6%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008년 대선과 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변수가 남아있으나, 현재의 안정적인 정치운용, 꾸준한 경제개혁 지속과 함께 본격적 유전개발이 시작된다면, 현재의 6%대의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의 점진적 축소 등 경제 제반 여건의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